

동급생 성폭력 피해 중학생 사망...학교·교육청 책임은?

가해 학생과 분리조치 미흡...피해학생 긴급조치도 안돼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 3일만에 숨져 인과관계 조사중

학교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중학생이 사망에 이르면서 학교 폭력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15일 전남교육청과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난 6월7일에야 늦은 등교가 이뤄진 전남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A군(14)은 동급 학생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9일 학교에 신고했다.

이후 A군은 신고 2주만인 7월3

일 숨졌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지 3일만이다.

A군의 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병원 소견에는 “아이는 성폭력 피해 이후 사건과 연관된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기억, 회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인다”며 “항후 이러한 정서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정신의학적 치료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조성을 포함한 적절한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성폭력 신고 이후 해당 학

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안학교인 이 학교는 성폭력 신고 접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조사하고도 이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해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만 내렸을 뿐 학교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피해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가해학생들과 저절로 분리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인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버젓이 다니는 학교에 어떻게 아이를 보낼 수 있느냐”며 “출석정지나 전학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가해학생들의 등교로 피해 학생이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강력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진 제5호 긴급조치(특별교육이수)를 집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등교 정지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하나인 피

해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조치(피해학생 긴급조치 제3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 6월29일 등교 의사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가해학생 1명이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다.

다음날 병원을 찾아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입원했으나 3일만에 숨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가해 학생의 출석은 정지시키더라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피해 학생과 다른 공간에서라도 수업을 받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

명했다.

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다 보니 귀가조치하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등교를 허락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며 “성폭력으로 인해 숨진 것인지 등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오유나 기자



고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15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의 위패와 영정사진 등이 장치에 들어서고 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내달 조세포탈 혐의 재판 출석

“2주 자가격리 거쳐 8월19일 공판기일 출석”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구그룹 회장(78)이 8월19일 진행되는 수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출석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5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허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항공편을 예매한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허 전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경과했다”

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19일에 진행되는 재판에는 허 전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18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8월19일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허 전 회장이 기저질환이 있어 광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며 “허 전 회장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승호 기자

고유정 ‘무죄’ 판결...자식잃은 아빠는 법정 뛰쳐나가

사형 원한 전 남편 유족도 무기징역에 “실망스럽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은 2심에서 재판 내내 담당 모습을 보였다.

광주고등법원 제2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욱)는 15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판결내용을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읽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이날 특유의 커튼 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재판부가 판결하는 내내 별다른 미동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선고 이후에도 머리를 쓸어넘기며 조용히 법정 밖을 나갔다. 반면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친아버지인 A씨는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 A씨 다리에 올려 죽은 ‘포 암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부부싸움하다 아내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징역3년’

장난감에 걸려 뒤로 넘어진 아내 머리 크게 다쳐 숨져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나무라는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50분쯤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을 하던 중 김씨가 아내를 밀쳤고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걸려 뒤로 넘어진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집

에는 부부 외 갓난아기 밖에 없었다.

김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던 점과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전화하는 등 구조 조치를 취했다”고 판시했다.

신봉우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